

재림주의와 ‘위대한 실망’:

윌리엄 밀러(1782-1849)와 유재열(1949-)을 중심으로

배 철 현*

- I. 들어가는 글
- II. 19세기 초 미국 재림주의의 발생
- III. 윌리엄 밀러의 재림주의
- IV. “위대한 실망”과 제칠안식교의 탄생
- V. 20세기 초 한국의 부흥운동과 신비주의종교들
- VI. 1960년대 재림주의운동 ‘장막성전’과 유재열
- VII. 나가는 글

I. 들어가는 글

최근 한국 그리스도교는 정통과 이단에 대한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류 교단들은 자신과는 다른 신앙관을 가진 집단에 대한 이단 시비를 거는 등 현대판 종교재판을 가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앙관을 표방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개신교 내에 일부교단들만 참석할 뿐이다.¹⁾ 대부분의 보수교단들은 WCC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개종주의반대, 그리고 비평적 성서연구를 이유로 WCC라는 세계적인 교회연합운동조직을 ‘비정통’ 혹은 ‘이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한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1960년대 개신교내 신비주의운동에 뿌리를 둔 소종파운동들이 개신교 주류교단들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한국 개신교 교단들 중에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장로회, 그리고 성공회만 참석하기로 결의하였다.

2 종교와 문화

어 신홍종파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다.

예수가 지상으로 다시 온다는 재림사상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었다. 예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1절은 하늘에서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기록한다.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천년주의²⁾ 종말주의자며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Dwight Moody는 “나는 나의 주님(예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이전보다 세 배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한다.³⁾ 무디의 이와 같은 고백은 전천년주의가 19세기 후반부에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보수적 개신교 신앙의 근간이 되었다. 이 사상은 오늘날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종말론에 관한 해석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하는 당시 근본주의적 복음운동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⁴⁾

19세기 초 재림주의를 주장하면서 미국적인 시민종교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밀러(1782-1849)다. 밀러 재림주의자들은 1844년 예수의 재림이 자신들이 예언한 대로 오지 않자, 이 사건을 ‘위대한 실망’Great Disappointment라고 명명한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종말예언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교단 ‘제칠일안식재림교’를 탄생시켰다. 예수의 재림이 자신들의 예언대로 오지 않자, 예언자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은 “실망”했지만, 이들은 재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교파를 창설할 수 있었다.⁵⁾ 이 모델은 종파기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사실 모든 종교는 소종파에서 시작하지만 제칠일안식재림교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반전적인 종파는 전례가 없을 것이다. 당시 밀러의 추종자들은 밀러의

2)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교 종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재림하여 천년치리를 시작하는 믿음이다. 이 밖에 ‘후천년주의’와 ‘비(非)천년주의’가 있다. 이들은 각각 천년치리가 예수 재림이전에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천년치리는 상징적이라는 믿음이다. ‘전천년주의’는 신약성서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재림에 관한 기록에 대한 독자적 해석에서 출발한다.

3) Douglas Morgan, "Adventism, Apocalyptic, and the Cause of Liberty," *Church History* 63, 1994, p. 235.

4) George M.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e of Twentieth-Century Evangelic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 32.

5) Roland L. Numbers and Jonathan M. Bultler eds. *The Disappointed: Millerism and Millenarian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 32.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생적인 미국신앙인 제칠안식교를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반전이 한국에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60년도에 등장한 재림운동⁶⁾의 기치를 든 소위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경우가 그러하다. 유재열은 당시 17세의 나이로 기성교회를 공격하면서 '장막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66년 5월 20일부터 신약 성서 <계시록> 12장 6절에 언급된 1,260일을 인용하여, 1,260일이 지난 1969년 11월 1일이 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의 장막에 모이라'라고 선포했다. 그는 그날엔 <계시록> 14장 1절에 등장하는 14만 4천명 신도들이 모일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에 이끌린 처음 모인 수는 3백여 명이었다. 그 수가 점차 늘어나 197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약 8백 세대 5,000여명이 장막성전에 입주하여 또 하나의 신앙촌으로 격리 집단을 형성하였다.

유재열은 1969년에 종말이 오지 않자 크게 실망한다. 자신이 성서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읽고, 그것을 축자적으로 계산하여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성서를 읽고 해석한 자신의 성서 이해가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1살이었다. 그는 한편으로 종말은 성도가 14만 4천명이 모일 때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다시 장막성전을 이끌지만, 여기에 모인 신도들의 열정과 자신의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후 신도들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여러 가지 내분은 계속되었으며 1975년 자신이 고소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는 이 과정 중 크게 실망하고 자신이 그 집단을 이끌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는 '장막성전'을 해체시키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교인들과 교회들을 한국 개신교 교단에 편입시켰다.⁷⁾ 한국 소종파운동 역사상 그 지도자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를 그대로 주류 교단에 가입시키는 일은 극히 드문 사건이다. 이 논문은 18세기 초에 미국에 등장한 윌리엄 밀러와 1960년에 한국에서 활동한 유재열의 '재림운동'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그들이 예측한 재림의 실패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6)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시한부 종말론이 본격화되었다. 동방교 노광공은 65년 8월 15일, 천국복음전도회 구인회는 1973년 11월 10일 종말을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4~5년에 한 번꼴로 시한부 종말론이 출몰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정점에 이른 건 1992년이다. 당시 10월 28일을 휴거일로 주장한 다미선교회를 비롯하여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성회(9월 28일), 다베라선교회(10월 10일) 등 50여 개 종파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다

7)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현대종교, 1986, p. 380.

II. 19세기 초 미국 재림주의의 발생

찰스 핀니 Charles Finney는 미국에서 19세기 초에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의 주역이었다. 그는 미국 개신교의 특징이 된 천년주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만일 교회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천년왕국이 3년 안에 올 것이다.”⁸⁾ 핀니는 이 문장에서 미국종교의 새로운 현상인 부흥운동과 사회개혁 운동의 핵심을 선포하였다. 그는 노예제도를 놓고 벌인 남북전쟁과 미국 개신교의 주도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신적인 근간으로 천년주의를 기치로 삼았다. 천년주의는 부흥운동의 정점이며 의로운 미국건설을 위한 기치가 되었다.⁹⁾

미국에서 발생한 천년주의 종말사상은 미국인들의 자생적인 시민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국종교를 ‘시민종교’라고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민종교는 시민들의 역할과 미국사회의 위치를 최선의 존재를 위한 조건에 걸맞게 시간, 공간, 그리고 역사 안에서 조망하는 종교적인 상징체계이다. 둘째, 시민종교는 정치적인 공동체나 종교적인 공동체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¹⁰⁾ 시민종교는 다른 그리스도교 종파들처럼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 정치적인 내용을 표현한다. 미국의 시민운동은 18세기와 19세기에 등장한 미국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등장한다. 미국 혁명운동과 공화국의 형성과정은 분명히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 미국 땅에 소위 ‘천년왕국건설’이라는 생각은 미국의 동북부를 휩쓸었던 ‘제2차대각성운동’ 안에¹¹⁾ 강하게 부각되었고 프랑스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미국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다. 천년왕국설은 특히 영국에 대항하는 주된 이데올로기로 등장하여, 영국은 ‘반그리스도’ *Antichrist*로 상

8) Charles Finney, "Hinderances to Revivals," *Lecture XV in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ed. William G. McLoughl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p. 306.

9) Timothy L. Smith,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in Mid-Nineteenth Century America*, New York: Abingdon, 1957.

10) Robert N. Bellah,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1967, pp. 1-21; Gail Gehrig, "The American civil religion debate: A source for theory construc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 1981, pp. 51-63.

11) 18세기 말엽 미국에서는 제2차대각성운동(1795-1835)으로 알려진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미국 중소 도시와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심지어는 야영 집회도 있었다. 이 운동으로 개신교 교인 수가 급격히 늘었고 사회구원보다는 개인영혼구원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절제운동, 여성해방운동, 흑인해방운동 그리고 해위선교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시민사회운동이 되었다.

정되었고 미국은 신약성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에 의해 박해받은 사막에 던져진 여인이 묘사된 미국독립운동에 중요한 정신적인 단초를 제공하였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에 예수가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미국에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사회적인 혼란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재림주의’와 그 정신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사회의 민주주의 운동과 도덕운동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밀러의 재림주의는 미국이 문화적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던 시절, 미국 동북부에서 등장하여 자유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고수하려던 신앙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을 통해 미국 초기 개신교운동의 특징인 정통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문화를 배태시켰다.¹²⁾ 당시 미국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근면하게 노동하고 가족을 중시하며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기관들을 통제하면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의 기성교회가 밀러의 재림주의의 성장을 방관만 한 것은 아니다. 밀러의 ‘재림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공격은, 몰몬교와 다른 급진적인 노예폐지론에 대한 공격과 함께 새로운 미국식 정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미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정적인 예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면밀하게 감행하였다. 이 방식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전략이기도 했다.¹³⁾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보면, 소위 정통이란 신학은 처음에는 여러 곳에서 소수였다.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수 교설들을 견제, 대결하고 특히 ‘타자’로 규정하는 이단시비로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당시 미국인들은 자신이 아닌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체성을 검증대상인 소종파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역설적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천년왕국을 도래시키려는 신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¹⁵⁾ 그들은 자신들이 지냈던 빅토리아 시대의 신조와 기준을 부인하는 열정적인 종교인들과 그들이 속한 소종파들을 위해 별도의 지하창고와 같은 계토를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밀러의 재

12) Ruth Alden Doan, *The Miller Heresy, Millennialism, and American Cul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p. 17.

13) 배철현, “교대교부들의 하이레스스”, 『종교와 문화』 23, 2012, p. 2.

14) Karen King, *What is Gnostic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p. 31.

15) *The Miller Heresy*, p. 216.

림주의가 1839년 이후 소위 개신교 주류에서 밀려나자, 이들은 당시 과학적이며 인간적인 시대사조와는 맞지 않는 급진적이며 초자연적인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를 신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곧 다시 강림한다는 급진적인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가족과 재산을 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였다.

만일 윌리엄 밀러(1782-1849)가 없었더라면,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⁶⁾ 그의 성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종말론은 1840년대 후반 ‘재림주의’운동을 촉발시켜 1860년대 ‘제칠일안식교 재림’교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칠일안식교재림종파는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종교운동들 중에 하나로 현재 5백만 명 이상의 신도가 있으며 그 증가속도는 몰몬교의 성장과 맞먹는다.¹⁷⁾ 이 종파는 다른 종교들의 초기 역사처럼, 처음에는 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윌리엄 밀러가 소종파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초기 재림주의자들은 미국의 제2차대각성운동 이후에 등장한 다른 시민종교의 형태를 띠었고, 국가와의 반대 입장에서서 자신들의 삶의 형태에 알맞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관들, 즉 병원, 교육기관, 그리고 상업 시설들을 만들었다.

Ⅲ. 윌리엄 밀러의 재림주의

밀러가 처음부터 보수적인 종파의 창시자가 될 자질을 보인 것은 아니다. 그는 젊은 시절 당시 미국을 휩쓸고 있었던 부흥운동의 부흥사를 흉내 내기보다는 이들을 비웃는 언행을 자주했다고 전한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침례교 목사였던 밀러는 “그들의 말, 어조, 열정 그리고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슬픈 눈물”을 종종 비웃었다고 전한다.¹⁸⁾ 그러나 1812년 미국전쟁은 밀러의 신앙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는 영국과의 전쟁에 장교로 참전하면서 죽어가는 동료병사들을 보고, 자신이 지녔던 이신론(理神論)적인 신앙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다.

16) George R. Knight, *Millennial Fever and the End of the World: A Study of Millerite Adventism*, Boise, Idaho: Pacific Press Publ. Assn., 1993; George R. Knight ed. *1844 and the Rise of Sabbatarian Adventism*,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 Assn., 1994.

17) Malcolm Bull, “The Seventh-day Adventist: Heretics of American Civil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50:2 (1989), p. 178.

18) Sylvester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Boston: Joshua V. Himes, 1853, p. 29.

삶과 죽음의 엄연한 현실이 그가 그렇게도 비웃었던 신앙으로 그를 인도하였다.¹⁹⁾ 밀러의 군복무는 그가 지녔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신론의 기대를 버리고, 그는 인간 영혼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희망이라 불리는 별', 즉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밀러는 전역하면서 '애국심'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²⁰⁾ 그는 1814년 가을, 영국과의 전쟁 중, 장교로 프라츠부르크 전투에 참가하면서 이신론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수용한다. 그가 신봉한 이신론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밀러는 이 전투에서의 기적적인 승리를 신의 섭리로 보았다. 그는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까지 무찌른, 숫자적으로도 우세한 영국군은 패하게 만든 이는 신이라고 생각하였다.²¹⁾

밀러는 이신론을 버리고 성서를 독자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는 1816년 어린 시절의 신앙으로 회심한다. 그는 "성서는 나의 기쁨이며, 예수 안에서 나는 친구를 찾았다"라고 고백하였다.²²⁾ 밀러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돌아와 맨 처음 집중한 것은 성서에 대한 심오한 연구였다. 그는 스스로 성서를 연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구약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매 구절을 완벽히 이해해야 다음 구절로 넘어갔다. 그는 성서의 각 구절들이 내포하고 있는 신비한 의미나 상호모순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크루텐의 성서용어 사전을 참고하여 의미가 불분명한 단어나 구절을 성서의 다른 구절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성서를 연구한 후, 1818년에 그로부터 25년 후 1843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그는 구약성서 <다니엘>과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기초로 예수 재림설을 제안한다. 특히 <다니엘> 8장 13-14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내용에 집중하였다: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가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다.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19) *Ibid.*, p. 55.

20) Joshua V. Himes, *View of the Prophecies and Prophetic Chronology, Selected from the Manuscripts of William Miller a Memoir of His Life*, Boston: Joshua V. Himes, 1842, p. 10.

21) William Miller, *William Miller's Apology and Defence*, Boston: Joshua V. Himes, 1845, p. 4.

22) *Ibid.*, p. 5.

23) *Ibid.*, p. 12.

"밤낮 이천삼백 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성서에 등장하는 숫자가 실재를 표상하며, 그가 성서를 일기 시작한 날부터 2,300일을 더하여 예수가 1843년에 다시 오실 것이라 주장하였다.²⁴⁾

밀러는 자신의 발견을 1818-23년까지 성서를 수없이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신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였으나, 자신의 계산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는 주변 목사들에게 1843년 재림설을 알리지만 그것을 믿는 목사들은 거의 없었다.²⁵⁾ 실망에 빠진 밀러는 그후 8년을 더 성서를 연구하고 그 자신이 이 소식을 미국인들에게 직접 전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재림설에 대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자 여러 종파 교회들이 그를 초청했고 1830년대 가서야, 1843년 재림설을 믿는 몇몇 목사들이 생겼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크리스천 코넥션'이란 모임의 조슈아 하임스 Joshua V. Himes이다. 조슈아 하임스는 1840년에 밀러의 재림설을 신봉하고 밀러의 신학적 견해를 책으로 출판하기 시작한다. 하임스의 대대적인 출판으로 재림설은 밀러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중요한 신앙운동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임은 글과 종교집회를 통해 밀러의 재림설을 전파한다. 그는 『시대의 기사들』 *The Signs of the Times*라는 책을 시작으로 밀러의 재림설에 관한 내용을 정기간행물, 도서, 그리고 소책자로 발행하였다. 하임스는 수많은 종교집회를 통해 1840-44년까지 재림설을 전파하였다.

1843년이 다가오면서 밀러의 재림파들과 다른 교파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 결과 밀러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만의 교단이 성립되었다. 당시 찰스 피치 Charles Fitch라는 재림주의자가 등장하여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는 <계시록> 14:8과 18:1-5에 등장하는 '바빌론'이라고 치부한다. 밀러 재림파들은 1843년,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밀러가 예측한 대로 1844년 봄에 예수가 재림하지 않자, 그는 다시 유대인 달력에 의거하여 날짜를 1844년 10월 22일로 옮겼다. 그러나 예수는 그날 재림하지 않았다.

24) William Miller, *Letter to Joshua V. Himes on the Cleansing of the Sanctuary*, Boston: Joshua V. Himes, 1842.

25) William Miller, *William Miller's Apology and Defence*, Boston: Joshua V. Himes, 1845, p. 15.

IV. “위대한 실망”과 제칠일안식교의 탄생

1844년 10월 22일은 밀러 재림파들에게는 커다란 실망, 그 자체였다. 그들은 스스로 <다니엘> 8장 14절에서 언급한 2,300일 후에 성전을 정화하는 성서구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한다. 예언이 실패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운동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일련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검토하여 거기에 등장하는 ‘성소’와 ‘정화’의 의미를 새롭게 찾았다. 그들은 <다니엘>에 등장하는 ‘성소’는 지상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유추한다. 남아있었던 밀러 재림파주의자들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가 새로운 선교를 시작하였고 그가 다시 오기 전에, 지상에 있는 재림파주의자들은 그 선교를 마쳐야한다고 믿었다. 이들은 1844년의 일정을 예수의 재림 이전 심판, 혹은 “검증 심판”investigative judgement이라고 이해하고 모든 성인들에 대한 심판이 예수 재림하기 전에 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의 성소와 예수의 선교, 그리고 밀러의 예수의 재림 이전 전천년설은 1844년부터 1863년 사이에 창립된 제칠일재림교의 기본교리가 되었다.²⁶⁾ 이들을 또한 종말의 때에 제칠일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의 준엄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첫 번째 천사가 말한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는 말은 밀러의 계시로 시작되었고, 두 번째 천사의 바빌론 멸망에 대한 선포는 1843년과 1844년에 자신들의 교회에서 나간 재림파주의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다. 제칠일재림주의자들은 1848년 세 번째 천사들이 선포한 예수의 재림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신의 모든 명령, 특히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을 자신들에게 한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윌리엄 밀러의 계시를 전수하였다고 보았다. 그들은 <계시록> 14장 6-12절로부터, 밀러의 종말의 시간 선포와 안식일에 대한 신의 명령을 읽었다. 그들은 또한 재림 이후 지상에 대한 ‘추수’가 세 번째 천사의 계시 이후 행해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26) 밀러운동에서 제7안식교재림교단의 설립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논문은 다음과 같다: Jonathan Bulter, “From Millerism to Seventh-Day Adventism: Boundlessness to Consolidation,” *Church History* 55, 1986, pp. 50-64.

V. 20세기 초 한국의 부흥운동과 신비주의종교들

전천년주의가 미국 개신교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파를 성장시킨 것처럼 한국 개신교의 탄생에도 깊이 관여한다. 민경배는 한국 개신교의 성공과 초기 형태는 미국식 경건주의와 복음주의라 진단한다.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세속과 종교를 극단적으로 분리하여 개인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였다.²⁷⁾ 한국 전통신앙의 큰 흐름인 샤머니즘과 결합한 경건주의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참여가 결여된 영혼구원과 정숙주의,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신학적인 담론의 부재로 나타났다. 우선 19세기 말부터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몰려온 초대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 모두 전천년주의 종말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재림한다는 말씀을 믿고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조선으로 달려왔다. 한국 개신교는 이들 신앙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신앙적 특징은 미국식 복음주의와 전천년설이다. 신생 한국개신교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동아시아 안에서도 중국과 일본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문상희는 한국의 이단성 종교의 배경은 이미 뿌리박고 있는 한국의 전래종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소위 ‘이단생성’의 배경은 거의가 세계적 기성 종교인 기독교, 불교, 유교와 같은 기성 종교에서 파생되거나 민간신앙이 이 종교들의 신앙체계를 차용하여 조직화하였다.²⁸⁾ 이런 신종교들은 19세기말 조선의 500년 역사가 서양에서 새로운 사상과의 만남으로 그 구조가 해체되는 과정 중에 등장한다. 특히 신종교들의 핵심교리에는 구한말 어두운 조선의 미래를 밝혀줄 개혁사상이나 종말론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이런 한국의 종말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앞두고 한국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형성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세 차례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09년의 백만인구령운동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으로 미국 개신교이 틀이 마련된 것처럼, 한국의 부흥운동은 한국개신교의 조타수가 되었다. 또한 이 부흥운동이 민족독립운동과 합세하여 한국적인 독특한 그리스도교가 탄생하였다. 이 당시 대표적인 부흥사 길선주와 김익두 두 목사는 재림 종말사상을 부흥회를 통해 선포함으로써 1910년대와 1920년대 한국교회 전역에 확대

2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한국 민족교회 형성과정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p. 149.

28) 문상희,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실태」, 서울: 기독교연감, 1972, pp. 55-56.

되었고, 이 종말 사상은 신사참배의 도전과 위협이 한국교회를 억누르던 1930년대 중엽부터는 일제강점기를 인내하는 정신적인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종말론신앙이 지나친 성서축자주의와 내세주의를 한국 그리스도교 형성의 근간이 되어, 그리스도교인들의 사회참여라는 중요한 덕목을 덜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그리스도교의 ‘비정치화’ 신앙이 고착화된 것이다.²⁹⁾

한국에서 개신교 내 미국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인종주의적 차별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의 교권주의에 반대하여 등장한 중요한 분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비주의적 종파이다.³⁰⁾ 이 종파들은 특히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가 정점을 향하고 있었을 때 가중되는 종교탄압정책과 나라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을 감싸줄 새로운 한국 기독교형태를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암울한 일본 식민지상황과 극도의 종교탄압을 당하면서, 수 천년동안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종교심을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당시 등장한 가장 대표적인 신비주의 운동이 바로 감리교 목사였던 이용도(1901-1933)의 신비주의 부흥운동이다. 이용도의 신비주의 신앙운동은 단순히 개인적이며 전투적이 배타적인 신앙운동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한 몰인식성과 교파중심적이고 서양 그리스도에 대한 무비관적 의존성에 대한 민족운동의 한 형태였다.³¹⁾ 그는 그리스도의 논쟁적인 교리나 신학이 한국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용도는 “오, 주여 나는 공(空)이요, 무(無)로소이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신비주의 기독교의 효시가 되었다.³²⁾ 그는 당시 조선 기독교회의 양적성장만을 추구하고 실천적 신앙을 도외시한 교리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한다.

일본 식민지시대의 신비적인 기독교는 1950년대 들어서면서 그 신비주의적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 기독교는 한국동란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면서 독특한 종교현상을 드러냈다. 하나는 반공주의적 기독교이다.³³⁾ 한국 교회는 전쟁의 발발과 원인을 복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돌리면서 그들을 <요한계시록> 6장 3-4절에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나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였다.³⁴⁾ 19세기 미국에서 전천년주의가 발흥한 이유에도 미국의 남북전쟁이 큰 계기를 마련

29) *Ibid.*, p. 294.

30)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현대종교, 1986, p. 115.

31) 이찬수, 「이용도의 생애, 신학, 영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1, p. 23.

32) 변중호 편, 『이용도 목사의 일기』, 서울: 심우원, 1966, p. 102.

33)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p. 57.

34)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p. 78.

해주었고 부흥회라는 새로운 신앙형태가 등장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 한반도에도 재현되었다. 한국교회에서 신비주의 소종파운동은 1930년대 형성되지만,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신비주의와 더 조직적인 소종파들이 등장하였다. 사상 유래가 없는 민족의 전쟁비극으로 극단적인 메시아 신앙이 자리를 잡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백문(1917-1990)의 이스라엘수도원, 문선명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박태선의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나운몽의 용문산 기도원 등으로 대표되는 종말론적 신비주의 소종파운동이다.

신비주의 소종파운동의 산파격은 김백문이다.³⁵⁾ 그는 1930년대 일제시대 형성된 이용도, 백남주, 황국주, 그리고 김성도 등의 신비주의적 전통을 이어받아 해방 후에는 그것을 문선명, 박태선 등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김백문은 1934년, 백남주가 세운 신학교인 원산신학산에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된다. 백남주가 사건에 휘말려 원산 신비주의 소종파 집단에서 축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백남주를 따라 평안북도 철산로 가서 김성도의 '새주(主)파'에 입문한다. 김성도는 1935년 '성주교회'(聖主敎會)를 창립하였고 김백문은 이 집단의 신비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들었다. 그는 1940년대 초반 경기도 파주로 이주하였고 1945년 해방 직후부터 이곳을 근거지로 '야소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웠고 서울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해 상도동에도 집회소를 마련하였다.

이때 김백문의 문하에 들어온 자가 후에 통일교를 창립한 문선명이다. 문선명은 1930년대 형성된 이용도 계열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다가 1945년 김백문을 만났다. 그후 1946년 6월초 평양에 도착해 신비주의적 신도들을 모아 교회를 개척했다. 문선명은 여세를 몰아, 1951년 1월초 부산에 도착해,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규합하여 소종파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54년 5월 서울에서 예수 재림의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 주장하고 자신이 재림주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즉 통일교를 설립했다. 이때 거의 동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이 박태선과 나운몽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 생활하던 한국 기독교 기성교회를 탈퇴하였다. 박태선은 자신이 장로로 시무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창동교회를 떠나 1956년 7월 1일 ‘한국예수교부흥협회’를 조직하여 오늘날 전도관의 모체를 이루었다.³⁶⁾ 그는 스스로 영모님(靈母任),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이슬성신, 참 구세주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1980년 1월 1일부터는 자신이 이 땅에

35) 김홍수, “한국교회, 이단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신문사 창간 44주년기념 학술세미나 발표문, 2004.

36) 「사이비 이단에 대한 대책과 지침 II」,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 1993, p. 43.

오신 새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³⁷⁾ 용문산 기도원을 창설한 나운몽은 세계사를 7,000년으로 환산해서 안식년을 뺀 6,000년이 될 때 예수가 재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10년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며, 그가 해석한 말세의 징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일곱 머리 짐승’이며, 일곱 머리 짐승은 핵무기를 소유한 일곱 국가라고 보았다. 그의 신학사상에서 한가지 파격적인 점은 그의 종교 다원주의형식이다. 그는 한국고유의 천신명칭인 ‘한울님’을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우리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임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단시비에 항상 휩싸이기도 하였다.

VI. 1960년대 재림주의운동 ‘장막성전’과 유재열

한국 개신교가 양반이 아닌 민중들 사이에 퍼진 신비주의 전통들이 1960년에 들어서서 다양한 형태들로 등장한다. 이전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전천년주의 종말사상이 1960년대 서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들이나 목사들에 의해 무천년설 신앙이 합세하여 한국 개신교 안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등 다양한 재림설이 자신만의 영역과 교인들을 확보한 채 자리 잡고 있었다. 이때 재림주의를 신비주의와 결합하여 새로운 소종파를 이룬 인물들 중 가장 어린 나이에 그 운동을 이끈 이가 바로 유재열이다.

유재열은 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절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사자암’이란 사찰 암자에 있었던 호생기도원에서 신을 경험하였다. 호생기도원은 김종규(본명 김용기)가 1964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속칭 사자암 아래에서 방을 빌려 집회를 시작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주님’ 또는 ‘아버님’으로 불리며 종말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소종파모임을 이끌었다. 김종규는 신도들에게 안수, 방언, 그리고 병고침과 같은 신비체험을 강조하고 주로 환자들을 치료하며 교세를 확장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말세심판의 피난처요 지상천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며 그 곳에 주가 재림하실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곳에 김 교주를 ‘주님’이라 부르는 여신도로 구성된 ‘12천사’ 조직도 있었다. 호생기도원에서 가장 먼저 믿기 시작한 유재열의 모친은 열정적인 신도였다. 모친의 인도를 받아 유재열은 이곳에서 신비체험을 경험한다.

37) 박태선은 1980년부터 자신이 새 하나님이며 예수는 거짓이고 크리스마스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 우상화에 몰두하던 박태선에 실망하여, 100만까지 육박하던 신도수가 그가 사망할 당시 1992년에는 약 2천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몰락했다.

유재열은 1965년 1월 어느 날 친구들과 기도원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한 손에 어린 양을 든 예수환상을 보았다고 전한다.³⁸⁾ 그는 환상체험 후 호생기도원에 열성적으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김종규가 상도동을 떠나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로 이사하자 유재열 일가도 함께 그곳으로 이주하였다. 교주 김종규의 여러 비리가 알려지면서 호생기도원은 와해되기 시작한다. 그곳에서 신앙 생활하던 유재열은 이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비경험을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등장하는 “내가 이일 후에 보니 하늘에서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라는 구절에서 ‘장막성전’이란 소종파를 이끌었다. 그는 환시 중에 예수를 만난 후, 이듬해 ‘종말 심판의 피난처’라는 경기도 과천 막계리에 장막성전을 설립했다.

전성기에는 청계산 저수지가 있는 막계동 일대에 2천여 명이 종말을 기다리며 집단생활을 하였다고 전한다. 유재열은 1960년대 한국산업화의 과정 속에 양적성장과 내세에 대한 회구가 한국교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시절 종말주의를 강하게 부각시킨 신비주의적 소종파운동을 시작하였다. 기성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신앙을 찾던 민중들이 장막성전에 모여 제2의 신앙촌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종교집단을 이루어 생활한다. 그는 특히 1966년 5월 20일로부터 1,260일이 지난 1969년 11월 1일이 되면 종말이 올 것이라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다. 종말을 대비하기 위하여 처음 모인 수는 3백여 명으로 그 수가 점차 늘어나 197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약 8백 세대 5,000여 명이 장막성전에 입주하였다.

유재열의 장막성전 운동에 두 번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첫 번은 1969년 11월 1일, 그가 지정한 날에 예수가 재림하지 않은 것이다. 윌리엄 밀러의 예수 재림에 대한 예측이 틀린 것처럼, 유재열의 예측도 빗나갔다. 종말을 갈망하던 장막성전의 간부들과 신도들이 서서히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유재열은 이때부터 자신이 이끌던 소종파 공동체 장막성전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후 장막성전을 둘러싼 사건으로 인해 유재열과 장막성전 지도자들이 고발당하는 사건이 1975년에 발생한다. 그는 이 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 사건으로 자신의 허구를 깨닫고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실천한다. 당시 주변으로부터 이단이며 교주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로 인한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어 스스로 자신이 세운 장막성전을 해체한다. 당시 월간 현대종교 발행인이던 탁명환 소장과 오평호 목사가 주도하는 청지기교육원이 해체작업에 관여했다. 그 이후 서울대공원계획이 막계리에 건립되어, 그곳에

38) 임웅기,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p. 54.

있던 장막성전이 헐리고 과천면 문원리에 새 부지를 받아 이사한다. 예수교 장로회 비주류 사당동측에서 이들의 전향을 위해 노력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가 창립되었다.³⁹⁾ 이삭교회는 합동비주류에서도 탈퇴해버리고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로 일제히 이름을 바꿨고 13개 노회 70개 교회로 정리됐다. 그 후 이삭교회 70개 지교회들은 1980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라는 명칭을 포기하고, 이들 중 9개 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교단(한교련)에 60개 지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한기총)로 각 교단측 검증을 거쳐 소속을 옮겨 편입되었다.⁴⁰⁾

VII. 나가는 글

윌리엄 밀러가 18세기 초 시민종교운동으로 시작한 전천년주의는 그의 추종자들 특히 화이트 여사에 의해 ‘안식일주의’와 합세하면서 제칠안식교 재림주의라는 교단을 형성하였다. 유재열은 1960년,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대한 열망이 최고에 달했을 때, 사회의 소외계층들의 마음을 신비주의적 종말론으로 얻는 데 성공한다.

과거 어린 종으로 불리던 유재열은 장막성전과 지교회, 소유재산을 정통교단에 내려놓고 자신은 사업가로 변신하였다. 그의 주도로 장막성전은 한국기독교 정통교단에 대부분 편입되었지만, 일부분은 다시 분파가 되어 유재열의 장막성전의 구조와 신학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더욱이 이들 몇몇은 자신들을 ‘재림 예수’나 ‘이긴 자’ 등으로 부르면서, 자신이 재림주가 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제칠안식재림주의자들은 윌리엄 밀러의 계시를 이 세상에서 펼쳐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을 하나의 교파라고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성서에 숨겨있는 예언을 이해하고 성취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다. 그

39) 유재열이 자신이 이끌던 소종파운동 장막성전을 해체하고 개신교로 편입시킨 후 자신은 일반인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 따르던 일부가 장막성전이란 이름을 도용하여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무지개증거장막 등 여러 분파들로 갈라져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연명하고 있다. 이 분파들의 장막성전의 교리와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특히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는 사명이 주었다고 하는 성서 해석과 교리는 이만희(현 신천지 총회장)를 통해 지금의 신천지에 고스란히 전승되었다.

40) 과천시 문원동의 이삭중앙교회는 현재 과천소망교회(담임 장현승 목사)로 이름을 변경하고 예장 개혁국제(총회장 유호문 목사) 교단에 소속해 있다. 교단 측은 여러 가지 검증을 한 후 과천소망교회의 가입을 허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들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특별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계 곳곳에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한다.⁴¹⁾ 밀러는 제칠일안식일재림교를 창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의 정신적인 근간이기도 하다. 유재열의 ‘장막성전’ 소종파운동은 자신이 인도하던 종교집단을 한국교회 정통교단에 편입시켜, 장막성전과 유사한 소종파운동들이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였다. 윌리엄 밀러와 유재열은 각각 ‘위대한 실망’ 이후 보여준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시작한 소종파는 다른 소종파운동의 결말처럼 비극적으로 마치지 않았다.

한국 개신교에서 반항적이며 파행적인 소종파운동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자칭 정통이라고 부르는 보수교단들의 극단적 보수주의, 집단이기주의이다. 교권화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과 영적 체험에 대한 열망에서 소종파운동이 반동적으로 파생하였다. 또 다른 요인은 소종파에 동조하는 이들이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는 점이다. 몇몇 대형 기성교회들은 세속적인 성공을 신의 축복으로 동일시하는 천박한 교리로, 이 소외계층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한 영향력이 있는 종교지도자에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의존성은 그 소종파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기성교단이라 할지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사유화하여 목사직을 세습하는 교회들도 이 시대의 또 다른 형태의 ‘이단들’이다. 윌리엄 밀러와 유재열의 소종파운동은 대한민국의 소종파운동들, 특히 자신을 신격화하여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수많은 종교집단들의 진로에 긍정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윌리엄 밀러, 조슈아 하임스, ‘대각성운동’, 시민종교, 재림주의, 전천년주의, 신종교, 소종파운동, ‘위대한 실망’, 유재열, 신천지

원고접수일: 2013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0일

41)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Grand Rapids, Mich.; Eermand, 1977.

참고문헌

- Bellah, Robert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1967).
- Bliss, Sylveste. *Memoirs of William Miller* (Boston: Joshua V. Himes, 1853).
- Bull, Malcolm. "The Seventh-day Adventist: Heretics of American Civil Religion," *Sociological Analysis* 50:2 (1989).
- Bulter, Jonathan. "From Millerism to Seventh-Day Adventism: Boundlessness to Consolidation," *Church History* 55(1986).
- Damsteegt, P. Gerard.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Grand Rapids, Mich.: Eermand, 1977).
- Doan, Ruth Alden. *The Miller Heresy, Millennialism, and American Cul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7).
- Finney, Charles. "Hinderances to Revivals," *Lecture XV in Lectures on Revivals of Religion*, ed. William G. McLoughli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 Gehrig, Gail. "The American civil religion debate: A source for theory construc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1981).
- Himes, Joshua V. *View of the Prophecies and Prophetic Chronology, Selected from the Manuscripts of William Miller a Memoir of His Life* (Boston: Joshua V. Himes, 1842).
- King, Karen. *What is Genosticis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Knight, Geroge R. *Millennial Fever and the End of the World: A Study of Millerite Adventism* (Boise, Idaho: Pacific Press Publ. Assn., 1993).
- Marsden, George M.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The Shape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c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Miller, William. *William Miller's Apology and Defence* (Boston: Joshua V. Himes, 1845).
- _____, *Letter to Joshua V. Himes on the Cleansing of the Sanctuary* (Boston: Joshua V. Himes, 1842).
- Morgan, Douglas "Adventism, Apocalyptic, and the Cause of Liberty," *Church History* 63(1994).

Numbers Roland L. and Jonathan M. Bultler eds. *The Disappointed: Millerism and Millenarian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Smith, Timothy L. *Revivalism and Social Reform in Mid-Nineteenth Century America* (New York: Abingdon, 1957).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김홍수, 『한국전쟁과 기복신앙확산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9.

———, “한국교회 이단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신문 창간 4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2004) 발표문.

문상희, 「한국 기독교계 신흥종교실태」, 『기독교연감』, 1972.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한국 민족교회 형성과정사』, 서울: 연세대출판부, 2007.

배철현, 「교대교부들의 하이레스시스」, 《종교와 문화》 23, 2012.

이찬수, 『이용도의 생애, 신학, 영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1.

임응기, 「한국 개신교계 신종교 윤리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신천지 증거 장막성전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탁명환, 『기독교이단연구』, 서울: 현대종교, 1986.

<Abstract>

Adventism and ‘Great Disappointment’:

William Miller(1782-1849) and Yoo Jae-Yul(1949-)

Bae, Chul-Hyun(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nth-day Adventism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merican native religious movement. The dramatic cultural instability of mid-nineteenth century America prompted the Millerite movement, resulting in Seventh-day Adventism. William Miller, a farmer and Baptist layman, prophesied the world would end in 1843. His failed prophecies end in “Great Disappointment” on the part of Miller himself and his followers. His Premillennialism won followers' mind and by the 1860s Millerism developed into Seventh-day Adventist sect. At the threshold of the twentieth century, Korea embraced American Pentecostalism.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mperial colonial administration, a distinctive form of Christianity emerged. Charismatic leaders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spiritual and mythical experience during revival meetings. In 1966, Yoo Jae-Yul at the age of 17 started to prophesy the Second-coming of Jesus Christ in 1969. He initiated a new religious sect, Tabernacle Temple movement. Like William Miller's case, his prophecy failed in great disappointment. Yoo Jae-Yul repented and bid farewell to his religious community. He persuaded his followers to rededicate about 70 churches belonging to Tabernacle Temple movement into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Key Words: William Miller, Joshua Himes, ‘Great Awakening Movement’, Civil Religion, Adventism, Premillennialism, Sect, ‘Great Disappointment’, Yoo Jae-Yul, Shinchonji